

01 교회 소식

교회 창립 31주년

31년간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전 세계 만민을 향한 구원의 섭리를 펼쳐 오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02 특집 1_ 생명의 말씀

권능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권능들을 우리 교회에 나타내 주셨다. 특별히 올해 베풀어 주신 권능의 역사를 되새겨 본다.

04 특집 2_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창대히 이뤄 온 우리 교회는 1만 여 지·협력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06 특집 3_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곳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천국』(하)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안의 황홀경과 함께 영의 세계를 체험한 간증도 소개한다.

만민뉴스

제603호 2013년 10월 13일(창립 특집호)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희한하고 기이한 무지개(2011. 1. 27 무안만민교회)



권능의 무안단물터(전남 무안군 해제면)



'92 세계성령화대성회에서 순서를 맡은 이재록 목사



교회 창립 30주년 예능위원회 축하공연(2012. 10. 7)



매일 밤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인도 이복님 원장)



만민하게수련회 시 치료받은 간증자들(2013. 8. 5)



대성전 건축에 앞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 세계 만민에게 빛을 발하게 될 6성전 가나안 성전 조감도

-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은 만민중앙교회는 전 세계 1만여 지·협력교회와 함께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4,5면 참조).
-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물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는 재창조의 역사,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권능을 통해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고 있다(2,3면 참조).
- 만민의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불같이 기도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루며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가득하다(6,7면 참조).
- 또한 구제와 선교에 동참하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있다(8면 참조).



GCN 방송 미국 송출실이 있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제10회 멕시코 콘퍼런스(2013. 6)



57개 언어로 발간된 이재록 목사 신앙서적



만민국제신학교 중남미 9개국 순회 강연(2007. 11)



'페루 연합대성회' 시 대통령과의 환담(2004. 11. 30)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시 치료받은 간증자들(2009. 9. 6~7)



인터넷과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에서 함께하는 예배(우리 교회 본당)

권 능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 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출애굽 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듯 역사하셨습니다(출 19:4).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권능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며 찬송했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과정을 일일이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이는 시점상 출애굽 한 후 약 1천 년이 지났을 때인데도 그 오래전 일들을 다시 떠올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제단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친히 인도해 오셨습니다. 2013년을 시작해 현재까지만 돌아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지요. 올해 10개월 동안에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권능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올해 베풀어 주신 권능의 역사를 되새기며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1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권능

올해 전 성도 기도제목 중 네 번째는 '권능'입니다. 이는 사람의 자유의지까지 꺾는 권능으로서 지난 송구영신예배 때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이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움직여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유의지까지 꺾는 권능'을 우리 교회 주의 종들과 레위족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연초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검'으로 주의 종들과 레위족들을 내리치려 하셨습니다. 성도들보다 앞서 영으로 변화돼야 함에도, 또한 수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변화가 더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의 담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칼'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기록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사야 66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 당할 자가 많으리니" 했고, 이사야 27장 1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1장 9절에는 "날카롭고 마땅된 칼로 묘사돼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의 검을 목자인 제가 대신 받았지요. 누군가는 찢값을 대신 치려야 공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주의 종들과 레위족들이 마음 중심에서 통회자복하며 변화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3월 31일 부활주일엔 저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하게 하였고, 공의로는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까지도 다 털어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죄의 짐을 떨쳐버리고 신속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주의 종들과 레위족들, 영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깨끗한 마음이 창조되는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중에서 가장 큰 권능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권능입니다.

2 영 분리의 역사를 통한 영의 세계 체험

3월 31일 부활주일 저녁, 하나님께서는 영 분리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몸에서 영을 분리시켜 지옥 및 천국을 보고 올 사람들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셨지요. 이에 5월 25일 금요일야 2부 시 주의 종과 일꾼 등 8명이 제 기도를 통해 한자리에서 영이 분리돼 지옥과 음부와 천국의 각 처소를 보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도 몸에서 영이 분리돼 영의 세계를 보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의 분리를 통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을 보고 왔지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은 고백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때 영이 천국으로 이끌려 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지요. 이 외에도 영의 세계에서 본 것들과 앞으로 될 일을 보고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처럼 영을 분리해 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심으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아직 성경을 이루지 않은 사람이 영의 세계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입신'이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입신'이 될 경우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 몸은 호흡만 하고 있을 뿐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지요.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은 사람이 사망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입신은 영혼이 몸을 떠나도 몸의 생명을 유지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요. 이처럼 입신에는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지난 5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결한 사람들의 영이 분리돼 영의 세계에 다녀왔습니다. 영이 몸에서 분리돼 나가도 혼은 남아 있기에 주변 상황을 인식합니다. 동시에 분리된 영을 통해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체험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체험한 영의 분리를 이 제단에서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체험했지요. 그래서 영 분리의 역사를 창세 이래 초유의 사건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 분리의 역사를 통해 천국과 지옥을 더욱 확신하며 '절대로 지옥 갈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고 다졌지요. 또한 천국 소망이 더해지되 새 예루살렘의 깊은 곳까지 알게 돼 영은 영을 이루려는 실질적인 행함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12)

3 많은 영의 사람이 탄생된 전국 기관장 교육

이런 흥만함의 열기는 7월 기관장 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관장 교육의 주제를 ‘온 영’ (히 10:22)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온 영의 마음까지 알려 주신 것은 성도들이 준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3개월 유예기간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수많은 성도가 영 분리의 역사를 통해 믿음, 소망, 사랑을 키워 왔지요. 영 대가자, 온 영 대가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이후 기관장 교육 직후까지 30명이 더 영으로 들어왔지요. 이러한 속도로 성장한다면 능히 많은 성도가 온 영을 이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상에 온 영을 이룬 믿음의 선진들은 인간 경작 6천 년 이란 기간 동안 매우 드물게 한 명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본 제단에서 한꺼번에 수많은 온 영의 사람이 나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단에 영의 보편화가 이뤄져 무수한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의 자유의지까지 꺾는 권능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권능으로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꺾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각자가 마음에 감동을 입어 스스로 욕을 벗고 영을 이루고자 힘을 수박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저는 만민의 책임자로서 성도들이 치러야 할 값의 90%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저를 희생해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의 훈련을 통해 영의 흐름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을 ‘사랑’으로 느끼므로 힘껏 노력한 성도들은 영의 흐름을 잘 타고 무럭무럭 믿음이 자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4 폭발적인 권능이 나타난 만민하게수련회

하나님께서 목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8월 만민하게수련회 시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는 굵고 진한 향으로 받기 원하셨습니다. 올해 수련회는 기사와 표적으로 구성된 영적인 종합선물세트와도 같았습니다.

먼저, 기사 분야를 살펴보지요.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으나 수련회장은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당한 기온이 유지됐습니다. 첫날 교육이 시작된 지 10여 분이 흘렀을 때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비를 머금은 구름들이 즉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많은 구름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별들로도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야 맞으라. 빛이여 임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에 수련회장 하늘을 덮고 있던 10여 킬로미터 두께의 막장구름이 구멍이 뚫린 듯 갈라졌습니다. 이내 교육장에 내리던 비가 멈췄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요. 반짝이는 별들도 볼 수 있었으며, 이동하는 별을 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서 비에 살짝 젖은 옷을 금세 말려 주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별레도 물리쳐 주심으로 교육장을 시종 쾌적하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창한 날씨로 역사해 주셨고, 간간이 시원한 바람도 보내 주셨지요. 그런데 같은 시각 서울 등지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날 하루 비락이 서울에만 1,008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2년 8월 한 달 발생한 낙뢰보다 22배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체육대회를 하는 동안 비구름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가 오후 2시 반에 마치기로 했는데 30분 이상 지연됐지요. 저는 폐회사를 하면서 “오늘은 약속이 2시 반인데 조금 지연돼서 여러분들 혹여 비를 맞을지 모르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폭우가 쏟아져 내렸지요. 첫날은 오던 비를 멈추게 하는 역사가, 둘째 날은 와야 할 비를 늦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기사를 베풀게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큰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받은 영의 훈련이 현실에 적용되는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잠자리 출현, 오로라 빛의 역사 등이 변함 없이 함께함으로 더욱 은혜 충만, 성령 흥만할 수 있었지요.

또한 첫날 교육 후 환자 집회 시 제가 단에서 전체를 위해 기도만 했는데도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던 많은 분이 치료받아 간증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셋째 날 캠프과이어는 찬양하는 내내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니다.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를 입었지요.

5 권능 및 능력 인침의 시간

수련회의 흥만함 열기는 그 주 금요일야 2부의 권능과



능력 인침의 기도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영을 이룬 6명과 영을 이룬 67명이 단에 올라 공개적으로 기도받게 하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영을 향한 사모함이 더욱 가득하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아가 권능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도받은 분들을 필두로 영으로, 온 영으로 나아올 성도들이 목자인 저와 하나 돼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의 흐름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저는 그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의 훈련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영의 흐름을 잘 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로 꼭 변화돼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얼마나 더 놀라게 역사해 주실까요? 이제는 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권능 및 능력을 인침받은 70여 명이 함께 이룹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마지막 때의 섭리에 동참하셔서 훗날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반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말, 금요일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일)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출구) 도보 10분
사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비움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말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말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말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말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야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일야예배 9:00 PM
토요일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전 세계 만민을 향

만민을 위한 1도약기



1982년 10월 10일, 만민중앙교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표어 아래 170여 명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렸다. ‘보배 중의 보배, 믿음’이라는 설교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3명의 성도가 모여 개척예배를 드린 후 77일만의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동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게 하셨다.

1987년 4월, 이재록 목사 신앙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발간, 5월에는 교회 신문 『만민중앙소식』(현재 만민뉴스) 창간을 비롯해 국내 부흥성회 및 국내외 방송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91년 7월,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단을 형성한 이후 이 목사는 세계 성령화 대성회 공동대회장,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 회년대회 실무대회장 등을 맡아 한국 교계 발전을 위해 힘썼다. 1993년 8월, 미국 워싱턴을 시작으로 LA, 탄자니아, 일본, 하와이, 아르헨티나 등 해외에서도 성회를 인도하며 세계 선교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1996년 6월에는 거듭되는 부흥으로 성전을 확장 이전해 지금의 성전에 이르렀고, 12월에는 무궁화 위성을 이용해 전국 지교회에서도 동시 화상예배를 드리게 됐다.

1998년 7월부터 시작된 교회적인 세 차례 시험을 통해 성도들은 더욱 기도에 힘쓰며 오직 선을 좇아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후에 펼쳐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 세계적인 부흥성회, 급속한 영의 흐름 등 모든 과정이 축복의 연단이었다.



1성전 (1982. 7~1984. 12)



2성전 (1984. 12~1987. 3)



3성전 (1987. 3~1991. 2)



4성전 (1991. 2~1996. 6)



5성전 (1996. 6~)



1

전 세계 만민을 향한 2도약기

남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바뀌는 창조역사가 일어났다. 7월에는 CNN에 보도된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시작으로 세계선교시대가 도래했다 (사진 1,2). 9월 ‘일본 연합대성회’ 이후 10월 ‘파키스탄 연합대성회’는 이슬람 국가에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사진 3,4)

2001년 ‘케냐 연합대성회’에서는 에이즈 등 수많은 질병이 치료됐고 ‘필리핀 연합대성회’를 통해 가톨릭 국가 필리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사진 6,7). 2002년 중남미에 성령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킨 ‘온두라스 연합대성회’(사진 8), 연인원 3백만 명 이상이 운집한 ‘인도 연합대성회’를 통해 무수한 영혼이 개종하며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사진 5).

2000년 3월에는 전

2003년 중동선교의 문이 열렸으며 성회를 통해 12개 위성과 공중파, 케이블 등으로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성결

(사진 9). 2004년 ‘독일 연합대성회’를 이 유럽 전역에 전파됐고, ‘페루 연합대성회’를 비롯해 정계, 언론계, 교계 지원 (사진 10,11) 2006년 ‘콩고민주공화국 연합대성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연인원 70만 명이 운집했으며,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미국 연합대성회’는 GCN 방송과 위성 방송을 통해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송출됐다.

2007년 7월부터는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구세주 되심을 선포했고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기도 했다. 2009년 9월에는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통해 예루살렘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담대히 선포했다.



대한 하나님의 섭리

14. '러시아 연합대...
이블 TV, 인터넷...
복음이 전파됐다...
통해 성결 복음...
대성회'는 현직 대...
속에 개최됐다(사...
합대성회'는 정부...
영 이상 인파가 운...
든에서 열린 '뉴...
및 공중파 방송 등...
다(사진 12,13).
을 다니며 예수가...
으로 말씀을 확증...
대성회'를 개최해...
예수가 왜 우리의...
(사진 14).



대성전 조감도

만민에 의한 3 도약기

2010년 1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는 진정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셨다. 여기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많은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만 했다. 예능위원회의 정화작업을 시작으로, 대학생들의 '새 예루살렘 가기 운동' 등 전 성도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12월 25일, 하나님께서는 영의 흐름 속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의 날을 허락하셨다.

10월에 개최된 '에스토니아 연합성회'는 에스토니아 기독교 역사상 최대 인원이 모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치유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2010 에스토니아 연합성회

2011년 1월, 러시아어권 최대 기독교 포털 사이트 '인빅토리'와 영어권 기독교 포털 사이트 '크리스천 텔레그래프'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2년 연속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자 10인'에 선정 보도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날로 더하게 하시며 5월부터는 영의 공간에서 나오는 근본 하나님의 빛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오로라 빛으로 축복해 주셨다(겔 1:27~28, 계 4:3).

2012년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크고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시고 교회 개척 30주년 기념일인 7월, 대반전의 역사와 재창조의 권능을 선포케 하셨다.

2013년에는 사람의 자유의지까지 꺾는 권능을 허락하시며 근본의 빛과 소리로 인해 구원과 치료, 응답과 축복을 체험케 하셨다. 자신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었던 세상 죄악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쉽게 버려지면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이 마음에 가득해졌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에 가나안 성전, 대성전을 건축해 전 세계 만민이 구원에 이르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전 성도는 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의 오종복음과 크고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높으심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안의 황홀경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아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인 『천국(하)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곳' 6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안의 황홀경 일부를 소개한다. 지난 5월, 영 분리를 통해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을 주신 간증 일부도 게재하며 만민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1. 새 예루살렘 성의 등이 되신 어린양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와 달은 물론 가로등이나 형광등과 같이 빛을 내는 물체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니 모든 인류도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롬 6:23).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림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생명을 얻고 부활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진리의 빛이 되어 주셨을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 천국에서도 영광의 빛으로 천국 전체를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돌린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오색찬란한 보석과 황금으로 지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끝없이 펼쳐 있습니다. 보석으로 지은 집이 내는 다양한 빛과 하나님 영광의 빛, 그리고 맑고 투명하면서도 푸른빛이 감도는 벽옥과 정금으로 지은 성에서 나는 빛이 어우러져 마치 성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중앙에는 생명수 강이 시작되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등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선진과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의 집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마다 특색 있고 웅장하며 화려한 성입니다.

2.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위치한 주님의 성

주님의 성은 하나님께서 예배나 연회를 베풀기 위해 임재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 아래쪽에 있습니다. 주님의 성 중앙에는 거대한 황금 지붕을 한 건물이 있지요.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와 빛깔의 건물이 무수히 펼쳐 있습니다. 특별히 돔 형식의 거대한 황금 지붕 위로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인 영광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렀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중앙의 큰 건축물은 원통형이지만 약간 각이 진 형태로 온갖 보석을 깎아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각 보석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어우러져 마치 무지개처럼 보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주님의 성은 러시아에 있는 성 바실리 성당과 흡사합니다. 물론 건축 양식과 재료, 건물의 규모 등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크고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 안에는 많은 집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배려하신 것이지요. 주님의 성을 바라보고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의 집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역시 찬란한 보석으로 지은 성입니다.

주님 성 앞쪽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집이 있고 그 다음으로 다른 제자의 집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주님의 성 안에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 처소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곳은 주님께서 이분들을 초청할 때에 잠시 머무는 곳으로서 원래의 집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 하나님의 성과 같이 지어져 있습니다.

3. 하나님 보좌 좌편에 위치한 성령님의 성

끝없이 펼쳐진 성은 마치 어머니와 같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듯 돔 형식으로 조화롭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성과 주님의 성 사이에는 영롱한 구름으로 만들어진 아치형의 다리가 있어 두 성을 연결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들은 모두 크기를 셀 수 없을 만큼 크지만 특히 주님의 성과 성령님의 성은 다른 것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도시를 방불케 하며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섬세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지휘 아래 천사들이 지은 다른 집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것이지요.

또한 주님의 성과 같이 성령님의 성 주변에도 성령 시대 이후 성령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룬 분들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의 성 주변에는 형형색색 보석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한창 짓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가 여기저기에 아름다운 보석을 달아 주거나 집터를 늘리는 등 분주히 일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아름다운 천국 집을 예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누리지 못한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세세히 준비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4. 신랑 되신 주님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를 비롯해 각종 크고 작은 연회가 계속됩니다. 성도들도 형제들을 초청해 연회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회 외에도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성도들을 초청하시면 주님 성을 방문하는 것이지요. 새 예루살렘 성의 성도들은 주님의 초청을 받으면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한 후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성에 모여듭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당도하면 황금빛 찬란한 정문에서 두 천사가 공손히 맞이합니다. 이때 온갖 보석으로 꾸민 담장과 그 위에 장식된 꽃에서 나는 그윽한 향기가 온몸을 감싸며 황홀감을 더해 줍니다.

정문 안으로 들어서면 영혼을 감동케 하는 아름다운 음악이 잔잔하게 들려오지요. 이러한 찬양을 들으면 평안함과 함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멀리 보이는 본채까지 가는 동안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며 조화롭게 가꿔진 정원을 지나 정금길을 걷노라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본채에 가까이 이르면 저만치 주님께서 마중 나온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뵙고 싶어 나는 듯 달려가면 사랑과 인자함이 가득한 얼굴로 두 팔을 벌려 힘껏 안아 주시지요. 주님의 따뜻한 환영을 받은 성도들은 “저희를 초대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며 그 품에 안겨 감동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주님의 손을 잡고 이곳 저곳을 거닐며 이 땅에서 나누지 못한 사랑의 대화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안내에 따라 본채 오른쪽에 있는 큰 호숫가에 이르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의 심정과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이 호수는 주님께서 사역한 갈릴리 호수를 연상케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하 생략)



“ 내가 본 새 예루살렘 성 황홀경 ”

아버지, 주님, 나. 그림고 그리운 이름. 불러도 불러도 한이 없이 보고픈 분들. 마음이 아리도록 사무치도록 깊이, 가슴 깊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저는 큰 두 천사장을 보았습니다. 위엄이 대단했고 눈은 빛나는 보석을 박아 놓은 것처럼 밝게 빛났지요. 순간 저는 하늘을 날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목자 성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는데, 아래를 바라보니 푸르른 숲이 펼쳐 있었습니다. 숲 사이로 강이 보였는데 목자 성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줄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서 나온 생명수가 하나의 원 줄기를 이루며 흐르지만 거기에서 뻗어 나온 수많은 작은 강줄기가 천국 곳곳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수 강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원 줄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가지가 쳐져서 강줄기가 뻗어 나옵니다. 그리고 뻗어 나온 강줄기는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에 들어온 집들로 하나씩 다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온몸을 돌고 도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생명수 강도 원 줄기가 동맥처럼 흐르고 거기서부터 가지가 수없이 뻗어져 나와 흐르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 제가 도착한 곳이 본체 성 꼭대기였습니다. 그런데 멀리 반짝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궁금한 마음이 들자 곧바로 마음에 깨우침이 왔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목자 성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집이었습니다.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집들의 윤곽이 보이지 않고 마치 하나의 별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짝이는 각각의 빛이 퍼져 나오는 모양도 달랐지요. 각 사람의 집에서 풍겨나는 향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렇게 구별된 빛만 보아도 '저건 누구 집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자 성 뒤편을 바라보았는데 뒤편은 바다가 펼쳐 있었습니다. 그 너머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빛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이 땅의 어떤 조명이나 빛으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에서 나오는 빛은 더욱 상상을 초월하는 밝기와 모양이었습니다. 점점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에 가까워질수록 바다가 보이지 않을 만큼 하얀빛이 찬란하며 오묘한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황금빛으로 가득한 목자 성 바다로 내려왔습니다. 제 눈에 하얀색 대리석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건물이 들어왔는데, 언뜻 보면 투명한 것처럼 보이면서 하얀 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 세 개 정도 계단을 올라갔는데, 제가 입은 옷의 끝자락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잠자리 날개처럼 혹은 속이 약간 비치는 듯한 소재의 흰 옷자락이었습니다. 세마포로서 하늘거리며 살짝 주름이 잡힌 듯한 치맛자락처럼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간 저는 어느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밖과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특별한 가구나 장식이 없었습니다. 다만 바다와 천장 사면 벽이 흰색으로 투명하게 비칠 듯한 재질의 방이었지요. '여기가 어떤 곳이지?' 하는 순간, 마음에 설명이 왔습니다. 그곳은 장차 성도들이 목자 성에 방문했을 때, 이곳에 들어와 이 땅에서 경작받을 때의 일을 추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본 건물은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커다란 문이 보였고 문고리가 보였는데, 문고리에는 두 개의 반지가 금시슬처럼 연결된 장식이 달려 있었지요. 반지는 신뢰의 상징입니다. 이 장식을 건물 문고리에 달아놓은 것은 목자와 이런 신뢰관계를 이룬 사람만이 장차 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곳은 목자 성의 본체였습니다. 본체에 들어섰을 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했던 한 권사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선하고 온유하며 차분하고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본 권사님의 얼굴은 이 땅에서의 얼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곱고 아름다우며 해맑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본체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에 도착했을 때, 마치 눈 앞에서 조명이 터지는 것처럼 밝은 빛을 느꼈습니다. 목자 성 본체 안에서도 1층과 2층의 빛이 이처럼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2층에 올라가서 면류관 두 개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면류관은 잘생긴 나뭇잎처럼 생긴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는 면류관이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만 약간 높고 나머지 네 개는 같은 높이였지요. 각각의 봉우리 끝에는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성결의 오중복음으로 크게 사역한 것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진 것이라 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이 땅에서 오중복음으로 전 세계 교구화를 이루셨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상급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이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결의 오중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데 공을 세우신 분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보여준 면류관은 가운데 부분이 봉우리처럼 높이 올라가 있고 끝이 세 개로 갈라져 있는 면류관이었습니다. 높이 올라간 부분에 빨간색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모양이면서도 보석 색깔만 다른 면류관이 또 있다는 깨우침이 왔습니다. '하얀색 보석이 박힌 면류관도 있고 황금색 보석이 박힌 면류관도 있다'라는 것이었지요. 이 면류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영이 여기까지 보았는데 그 순간 당회장님께서 제게 안수하시며 "영아 돌아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제 영은 곧바로 돌아왔고 눈을 떠 보니 본당이었습니다. 돌아와야 하는 순간 저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뵈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버지를 뵈고 올 수 있는 공의가 쌓인 것도 아니었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에 마지막 한 마디 "아버지, 제가 꼭 다시 올게요."라는 고백을 남기고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바로 간증했습니다.

- 신동초 목사 간증 설교 중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재록 박사님의 사랑과 격려 속에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실로미 아브라모브 목사 (리슨 레치온 면류관 보석교회)



저는 유대인 목회자로서, 이재록 박사님께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시고,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후 이스라엘 기독교계는 깨어나 교회 부흥은 물론,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이 형성돼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록 박사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으로 가능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목회자가 이스라엘을 다녀갔지만 박사님만큼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분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 박사님을 특별히 보내 주셨다고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사님께 권능의 기도를 받고 제 아내는 폐렴을 치료받았습니다. 또한 담낭염을 앓아 급히 수술해야 했지만 박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치료됐지요. 요양원에 계시던 어머니도 낙상으로 인해 걷지 못했는데 권능의 무안단물(출 15:25)을 뿌린 후 걷게 됐습니다.

이재록 박사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며 최고의 친구도 되십니다. 어느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이해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후원하고 계시지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 섭리를 이뤄 가시는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만민중앙교회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김동호 형제 (4청년선교회)



대학에서 만화를 전공한 저는 학원 강사로 입시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저희 가족은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1996년 10월, 온 가족이 만민중앙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 때

까지 교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세심한 배려였지요.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지원하시는 당회장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저는 2010년 군 전역 후 대학교 2학년이 돼서야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었지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좋은 직장을 구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저는 지나온 시간들 속에 함께하신 주님 사랑에 감사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주시고 저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힘겹고 어둡던 제 인생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성애 집사 (1대대 1교구)



저는 모태신앙으로 결혼 전까지만 해도 주일학교 반사와 성가대 사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 결국 교회에 발길을 끊었지요. 2003년, 무역업을 하던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져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남편이 남기고 간 부채를 떠안으면서 저는 두려운 마음에 집을 나왔지요. 일가 친척 등 일체 연락을 끊고 정처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게 큰 충격이 돼 저는 말문이 막혔고, 급기야 단어조차 생각나지 않아 기본적인 말만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쯤 되어서야 저는 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딸이 채권단에 회사와 아파트 등 남편이 남긴 재산을 넘겨 빚을 정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딸의 가정 형편상 함께 살 수 없기에 저는 딸이 마련해 준 구로구 가리봉동 고시원에서 거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교회를 다시 다녀야겠다고 생각했기에 무작정 교회를 찾아 나섰는데, 그곳이 바로 만민중앙교회였지요.

교회에 들어서자 제 마음은 평안했고, 어느새 뺨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기하게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왔지요. 위로와 소망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담당 교구장님은 제 처지를 아시고 교회에서 구제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염치없고 죄송했지만 의지할 곳이 없는 제게는 큰 힘이 됐지요. 방세는 딸이 감당하고 교회에서 주시는 구제금과 밀반찬으로 생활하니 점차 안정됐습니다. 또한 구역 식구들과 교구에서 보살펴 주는 그 사랑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지요. 80세 고령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로와 평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당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피동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